

광주 테니스 꿈나무들 “권순우 선수처럼 될래요”

초·중·고 23명 합동훈련 구슬땀

지난달부터 살레시오고 코트 선수 발굴·육성 위해 첫 실시 초·중 선수 경기력 향상 도모 고교 선수 지도자 간접 경험

“팡 팡.” 지난 3일 광주 살레시오고 테니스코트에는 광주 테니스 꿈나무 선수들의 라켓에 테니스공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온 힘을 다해 라켓을 휘두르는 선수들의 입에선 ‘쓰윽’하는 강렬한 호흡 소리가 터져나왔다. 찬 기운이 몸속으로 파고들 만큼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하는 이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광주지역 주니어 테니스 선수들이 ‘미래의 권순우’를 꿈꾸며 동계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동계합동훈련에 참가한 꿈나무 선수들은 봉선초(4명), 울곡초(8명), 송원스포츠클럽(초등 3명), 봉선중(2명), 살레시오중(3명), 살레시오고(3명) 등 총 23명이다.

초등 선수부터 고등 선수까지 한데 어울려 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동계훈련을 벌여온 광주 전문체육 테니스 지도자들이 초·중·고 연계 합동 훈련을 통해 주니어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 엘리트 테니스를 활

성화하자는 데 의기투합해 마련했다.

나찬일 살레시오중 감독 교사를 비롯한 강재선(봉선초), 문경현(울곡초), 이해선(봉선중), 이해옥(송원스포츠클럽), 김귀태(살레시오중·고) 등 지도자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지도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실시되는 합동훈련은 기본기 훈련과 전술 훈련, 실전 감각 쌓기, 체력 보강 등으로 짜여졌다.

오전 8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선수들은 11시 30분까지 스텝과 기본 자세 등을 익히는 기본기 훈련을 받는다.

오후 1시 30분~4시 30분까지는 올시즌을 대비한 전술 훈련과 실전 경기 감각을 쌓는 훈련에 매진한다. 이어 1시간 동안 근력, 순발력, 민첩성, 코어,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인터벌 훈련을 진행하며 체력 보강에 힘쓴다. 동계합동훈련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선수들은 동계합동훈련 기간 중 스토브 리그적인 지역대회에도 참가해 2023시즌을 대비한 실전 점점에 나선다.

초등 선수들은 오는 9~1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창원초등테니스대회에 참가한다. 중·고등 선수들은 오는 16~23일 경북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개최되는 하나증권 김천주니어테니스 대회에 출전한다.



광주 주니어 테니스 선수들이 지난 3일 광주 살레시오고 테니스코트에서 초·중·고 연계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나찬일 감독 교사는 이번 동계합동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함께 선배 선수들의 우정도 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 감독은 “초등 선수들은 중·고등 선배들의 기술자세를 보고 볼을 받으면서 기술 향상을 이뤘다. 고등 선수들의 경우 어린 선수들과 연습 경기를 통해 기본 감각을 익히고 지도자 간접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이번 연계 육성 합동 훈련을 통해 우정도 쌓게 돼 광주 엘리트 테니스 선수들의 화합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가 선수들도 이번 동계합동훈련에만 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대표가 꿈인 최지윤(살레시오고 2년)은 “초등학생이랑 게임을 해보니 활기찬 느낌을 받았고, 아이들에게 기술자세를 알려주면서 지도자 능력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올해 전국대회에서 입상권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호림(봉선중 3년)도 “봉선중 선수가 2명 뿐이어서 지루한 연습만 했었는데 이번 합동훈련에서 고등학교 오빠들이랑 랠리하는 등 여러 명이 하니깐 활기차고 즐겁다”며 “올해 전국대회 16강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이 배우고 기량 향상을 꾀하겠다”고 웃었다.

권순우를 롤 모델로 삼은 안유빈(울곡초 6년)은 “연습시간이 늘고 언니, 오빠들에게 기술과 자세 등을 배워서 실력도 향상되는 느낌이다”며 “권순우 오빠처럼 한국 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남 회장과 임상모·김금희·차현호 부회장, 유호원 전무이사 등 광주 테니스협회 임원들은 지난 3일 살레시오고를 찾아 합동훈련 중인 주니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합구 100개를 전달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한국 男 테니스, 사상 첫 연속 데이비스컵 16강

벨기에 상대 2패 뒤 3연승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이 2023 데이비스컵 최종 본선 진출전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2년 연속 데이비스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박승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2023 데이비스컵 최종 본선 진출전(4단1복식) 둘째날 복식과 3, 4단식을 모두 이겨 최종스코어 3-2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3월 열린 파이널스 예선에서 오스트리아를 3-1로 물리쳐 2007년 이후 15년 만에 데이비스컵 16강 무대를 밟았던 한국은 2년 연속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 진출했다.

2년 연속 데이비스컵 16강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은 1981년, 1987년, 2007년과 지난해 데이비스컵 16강에 올랐다.

짜릿한 역전극으로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진출권을 따낸 한국은 오는 9월 파이널스 본선 조별리그에 나선다.

올해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는 지난해 결승에 올랐던 호주와 캐나다, 와일드카드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이미 진출했고, 이번 주말 최종 본선 진출전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미국, 스위스, 영국, 세르비아, 스웨덴이 합류했다.

나머지 5자리는 크로아티아-오스트리아, 칠레-카자흐스탄, 네덜란드-슬로바키아, 핀란드-아르헨티나, 체코-포르투갈 경기 승자로 채워진다. 최동환 기자

쇼트트랙 박지원·김길리, 월드컵 1500m 남녀 동반 금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박지원(서울시청·사진)과 여자 대표팀 김길리(성남시청)가 월드컵 5차 대회에서 나란히 1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지원은 6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1500m 2차 레이스에서 2분18초263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날 남자 1000m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이다.

박지원은 월드컵 랭킹 총점 868점을 기록하며 2위 홍경환(634점·고양시청)과의 격차를 더 벌였다.

월드컵 랭킹은 1~6차 대회 개인



성적으로 결정한다. 6차 대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여자 1500m 2차 레이스에선 김길리(서현고)가 2분38초406으로 우승했다. 또 베테랑 심석희(서울시청)가 동메달을 땀다. 최민정(성남시청)은 여자 500m 결승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 종목 우승은 수잔 슐팅(네덜란드)이다.

중국으로 귀화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린샤오원(한국명 임효준)은 남자 500m에서 41초329로 우승했다. 린샤오원은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중국 대표팀에 금메달을 안겼다. 대회 2관왕이

다. 뉴시스



케인 ‘통산 267골… 토트넘 최다골’ 축하

토트넘 홋스퍼의 해리 케인이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2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케인은 이 골로 EPL 역대 세 번째 200골(304경기)을 달성했고, 통산 267골을 기록하며 구단 레전드인 지미 그리브스(266골)를 넘어 토트넘 최다골 주인공이 됐다. 토트넘은 이날 케인의 득점에 힘입어 맨시티에 1-0으로 승리했다. AP/뉴시스

‘벤투 후임’ 새 사령탑, 첫 상대 내달 24일 콜롬비아전

3월 국내에서 열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첫 상대가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로 정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3월24일 콜롬비아 대표팀과 A매치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경기 장소와 Kick-off 시간은 추후 확정된다.

콜롬비아전은 2022 카타르월드컵 16

강을 이끈 뒤 결별한 파울루 벤투 감독 후임인 새 감독의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협회는 3월 A매치 이전에 새 감독 선임 여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 3월28일 열린 A매치 두 번째 상대도 남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매치 기간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륙선수권 예선 일정이 잡혀 있고 북중미도 대부분 네이션스리그 경기를 치러 남미 국가들과 A매치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월 두 경기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황인범(울림피아코스), 이강인(마요르카), 김민재(나폴리) 등 해외파들도 소집된다. 콜롬비아는 한국이 역대 전적에서 7차례 만나 4승 2무1패로 앞서 있다. 최동환 기자